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당회**: 1부 예배 후 10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 ② **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세례식).
- ③ **선교학교**: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선교의 삶과 비전입니다(선우형식 목사).
일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Chapel Room
- ④ **기도**: 기성 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⑤ **모임**: 1부 예배 후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 ⑥ **교육**: 회장단 모임 후에 유아실에서 세례자를 위한 예비교육이 있습니다.
- ⑦ **성경공부**: 30, 40대를 위한 성경공부반을 개설합니다.
개강: 11월 4일(금) 7시 30분 기간: 7주 장소: 미정
- ⑧ **음악교실**: 갈보리교회 음악교실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일시: 10월 28일~12월 9일(매주 금) 오후 3시 30분-8시 30분 장소: Chapel Room
과목: 영어 노래반, 피아노, 플룻, 첼로반 강사: 송민영 집사
등록비: \$30, 렛슨비 무료(선착순, 교회) 문의: 940-3381, 369-5077(교회)

갈보리 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지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국내 선교지

- ▷밀알장애우 봉사

10월 교회 일정

선교 학교 개강:

10월 6일 (매주 목요일)

중고등부 수련회:

10월 14일(금) - 15일(토)

감사주일, 세례식:

10월 30일 (주일)

단기 선교 훈련 일정

	강의 주제	강사
10/06	개강예배/ 바누아투배우기	이태한 목사
10/13	선교와 세계관	배형근 강도사
10/20	선교의 역사	변영우 전도사
10/27	선교사의 삶과 비전	선우형식 목사
11/03	예배와 영적전쟁	토우마타 선교사
11/10	단기선교의 이해	이태한 목사
11/17	선교와 기도	안광국 목사
11/24	바누아투 배우기/종강예배	진혜령 전도사

10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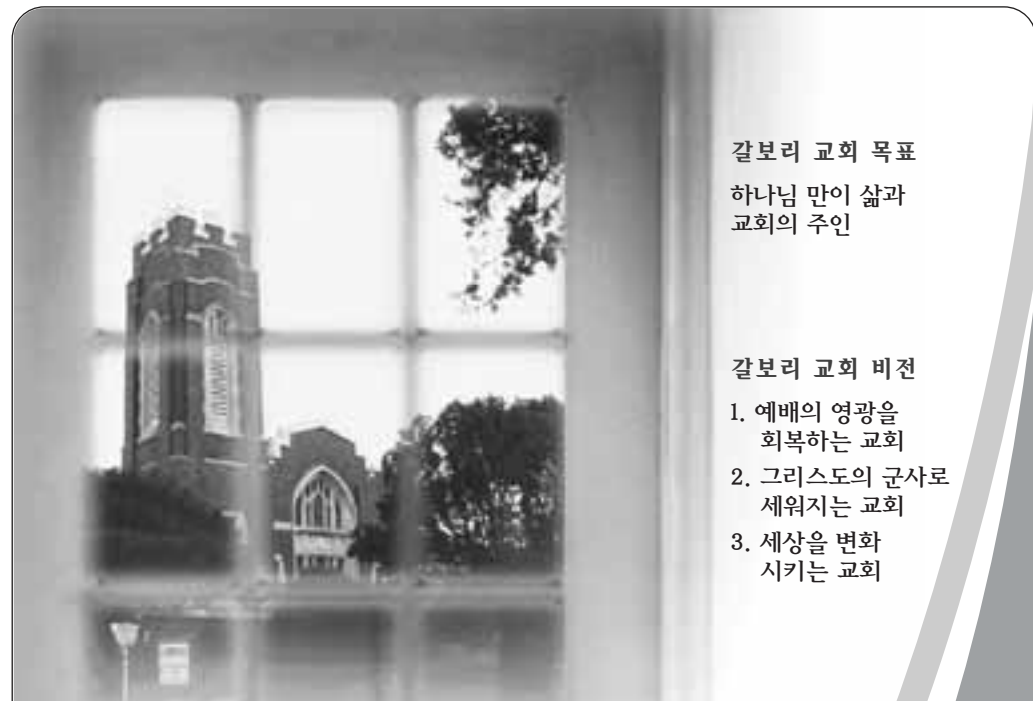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안내
2일	박병민	조은유	신미숙	최계학/노은숙
9일	최득수	김성희		최계학/노은숙
16일	유승재	김정민	김교섭	심경순/김광자
23일	정관영	이예슬	심경순	심경순/김광자
30일	이광희	장연식	정덕수	심경순/김광자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새로 시작한 항암치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성 형제의 혈소판과 당뇨 수치 등 여러 장기들이 항암 주사에 약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 기성형제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고통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골수이식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혹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면 그 결과가 빨리 나오고 이식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3.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개강한 선교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선교 학교가 되도록. 강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창진
- 교육전도사 : 진혜령
-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 휴무장로 : 김영길
-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계학, 유승재, 박제용
- 지휘 : 윤형권
-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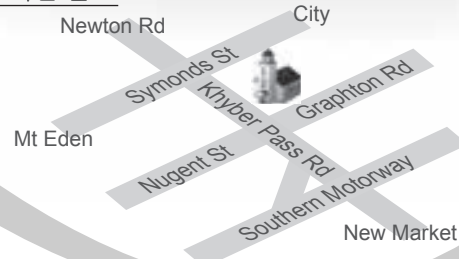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 수요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0월 23일

주보 13권 43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5:1-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0장	다함께
*성서교독	76. 요한복음 1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91장	다함께
대표기도	정관영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4:1-12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예수 이름으로만	이태한목사
찬송	88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성서교독 76.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보리 칼럼

꽃반지 끼고

그 주말 아침,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멎고 해님이 살포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때, 그곳 미션베이 주차장엔 벌써 많은 차가 들어차 있었다. 그다지 많지 않은 빈자리 중 하나에 차를 주차 시킨 후 잠시 누굴 만나고 온 사이 그만 차의 동력이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몇 번을 시도해 보지만 차는 끼룩끼룩 병든 기러기 소릴 지를 뿐 다시 조용해진다.

순간, “큰일이네! 곧 가야 하는데.”

도로변엔 큰 버스가 토해낸 많은 관광객이 건널목을 건너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한다.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리는 걸 보면 한국 관광객들인 것 같은데 반갑기보다 스멀스멀 고립감 같은 게 웅덩이에 물이 고이듯 고인다. 어찌해 볼 수 없는 군중속의 고립감. 나는 습관처럼 트렁크를 열고 빨강색과 검은색의 점프 스타터를 찾아 손에 맡아준다. 하지만 언제나 양쪽 차중 한 차의 주인이 와야 될 테고 와서도 차를 돌려 엔진 쪽을 우리 차와 나란히 해야 될 터이다. 양쪽 차들은 모두 후미가 화단 쪽으로 향해 있고, 그 사이에 내 차만이 화단 쪽을 보고 주차해 있기 때문이다. 기도,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바다 쪽 싱그러움 속으로 나를 쉽게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다. 보석처럼 영롱한 작은 물방울을 매단 잔디들은 싱싱하고 집을 침수당한 개미들이 부지런히 굴속에서 진흙들을 물어 나른다. 들성들성 나 있는 키 작은 클로버가 꽃부터 피웠다. 클로버 꽃반지를 만들어 왼손 약지에 끼고 팔을 주욱 뻗어 두 눈을 지그시 뜨고 바라본다. 이젠 많이 늙어버린 손 그래서 어릴 적보다 꽃반지는 더욱 예쁘다.

시티 쪽으로 보이는 바다에는 하얀 요트들이 엄마가 당겼다 놓은 아기 요람처럼 흔들리며 서쪽 하늘엔 고운 무지개가 걸려 있다. 여러 종류의 바닷새들이 깃털을 말리느라 바쁜 모래톱, 그리고 먼 바다를

지나온듯한 바닷내 나는 바람이 폐부 깊숙이 심호흡하게 만든다. 그 사이 활짝 퍼진 햇살은 맞은편 섬을 감싸 안고 있던 얇은 안개조차 걷어내고 있다. 수목화의 여백처럼...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가득한 싱그러움으로 또 촉촉함으로 마음을 차오르게 한다. 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소소한 주변의 일상들이 귀하게 와 닿는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여유와 이 포만감.

“아! 하나님 이것이었습니까?”

이런 운지 수개월 그뻔 정말 같기를 세운 말처럼 달리고, 전선에 앉은 참새처럼 불안하고, 또 잘 소통되지 못하는 영어로 자막질하는 것 같은 일상 앞에 그날의 한나절은 나에게 쉽표로 표시된다. 물론 좋은 키워 차주를 만나 친절하게 차를 돌려 점프해주고 도리어 그가 즐거워하던 걸, 좀 오랜 시간 후이긴 하지만, 뭐 어찌라 꽃반지도 끼었는걸...

하나님은 우리가 숨차할 때 쉬게도 하시지만, 절망이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된다. 바로 점프 스타터를 흔들기 전부터.

담쟁이 -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앞 하나는 담쟁이 앞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닮기 시작했을까?

- 이경자 권사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이광희장로 11월 6일: 현석호장로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46.00 총계: \$599,961.19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이예슬자매		
기도	이예슬자매		
성경봉독	요나서 1:7-12	인도자	
설교	나 때문인 줄!	심창진목사	
찬송	God'll make a way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장연식집사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심경순집사		
기도	심경순집사		
성경봉독	사사기 3:12-30	인도자	
설교	사사 에훤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358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일예배 기도: 정희자권사
다음 주 기도: 정덕수장로